

⭐ 일곱 등잔 사이에 서신 주님의 일곱 통 편지

I. 서론

요한계시록 2–3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게 보내신 실제 편지이면서, 동시에 교회 시대 전체를 관통하는 모형과 예표입니다.

- 각 교회는 A.D. 1세기 실제 도시와 실제 지역 교회였고,
- 동시에 에베소에서 라오디게아까지의 순서는 교회 7시대의 예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세대주의 관점).
- 또 한편으로는 오늘 우리 교회와 개인 신자의 영적 상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

이 문서에서는

1. “각 교회의 천사”가 왜 목사/장로가 아닌 문자 그대로의 천사인지,
 2. 7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칭찬—책망—경고—약속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하고,
 3. 계시록의 ‘이기는 자’가 일부 탁월한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이며, 그에게 약속된 것은 상급이 아니라 공통 상속임을 살펴보고,
 4. 필라델피아 교회가 유일하게 “환난을 면제받는” 약속과 환난 전 휴거(**Pre-trib Rapture**)의 관계를 정리 하며,
 5. 중간 휴거·환난 통과·부분 휴거론이 왜 비성경적·비그리스도론적·비교회론적인지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

II. 본론

① 각 교회를 향한 편지의 수신자, “천사”는 누구인가? 😊

계 2–3장을 보면, 일곱 편지는 모두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계 2:1, 흄정역)

여기서 “천사”는 그리스어 **ἄγγελος(aggelos, 앵겔로스)**, KJB: *angel* 입니다. 기본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 심부름꾼(메신저)”입니다. 그래서 주류 해석자들은 이것을 “교회의 목사/장로”로 보지만, 계시록 문맥 전체와 “성경 문법”을 보면, 실제 천사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1) 계시록 안에서 “천사(aggelos)”의 사용

- 계시록에서 ‘**angel**’는 거의 항상 하늘 존재, 천사를 가리킵니다.

- 인 봉을 여는 천사들,
- 나팔을 부는 천사들,
- 대접을 쓰는 천사들,
- 큰 음성을 외치는 천사들 등.
- 계 1:20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 “네가 본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요, 일곱 금 등잔들은 일곱 교회니라.”
 - 일곱 등잔 = 교회(지상), 일곱 별 = 천사(하늘).
- KJB에서 “목사(**pastor**)”라는 단어는 구약 렘 2–3장 등에서 “목자들”에 대해 쓰이지만, “**angel**”을 인 간 목사와 동일시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2) 별과 천사: 상징의 일관성

- “일곱 별”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습니다(계 1:16, 2:1).
- 별과 천사를 연결하는 구약적 배경:
 - 육 38:7에서 “새벽의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다” – 별과 천사 이미지의 병행.
 - 단 10장, 12장에서 각 나라 위에 있는 영적 지도자(영적 통치자)들이 등장합니다(단 10:13.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우리머리 통치자들 중 하나인 미가엘”, 단 12:1. “큰 통치자 미가엘”).
- 이처럼 성경은 특정 집단 위에 있는 영적 존재를 “천사/별”的 이미지로 자주 연결합니다.
- 그러므로 각 지역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연관된 ‘하늘의 메신저(가디언 엔젤)’를 두셨다고 보는 것이 문맥에 자연스럽습니다.(마 18:10)

(3) “주류” 해석: 천사 = 목사, 장로, 사람 메신저

대부분의 현대 주류 주석·설교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1. “**angelos**는 원래 **messenger**다” 논리
→ 그러니 “교회의 사자 = 그 교회의 대표자/목사/장로”라는 것.
2. 내용이 사람에게 더 어울린다는 주장
 - “회개하라”, “버렸느니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 등의 책망과 경고가 죄를 범한 사람에게 더 어울린다.
 - 타락한 천사들은 이미 고정된 심판 아래 있고(벧후 2:4), 여기에 나오는 천사들은 그런 범주가 아니라는 주장.
3. 유대 회당의 “사자(**angel**)” 전통을 끌어오는 설명 (정동수 목사님 견해)
 - 회당에는 “회당의 사자/천사”라 불리는 담당자가 있었고, 그가 기도와 말씀 선포를 맡았다는 식의 설명.
 - 그래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천사”도 그런 식의 회당-스타일 사역자를 부른 말이라고 보는 견해.

⛔ 이 “주류 해석”的 문제점 (KJB 관점에서 비판)

1. 성경이 아니라 “후대 유대 전통”에 근거

- 회당 구조, “회당의 천사” 같은 용어는 성경 안이 아니라 탈무드·라삐 문헌에서 나타나는 후대 자료입니다.
- 계시록의 해석을 비성경적 전통에 기대어 세우는 것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원칙(고전 2:13)을 벗어납니다.

2. 계시록 전체의 ‘angel’ 사용과 충돌

- 바로 같은 책 안에서 angel은 거의 항상 초자연적 존재입니다.
- 오직 여기만 “목사”라고 바꾸는 것은 일관된 성경 문법을 깨뜨립니다.

3. 교회 조직과도 딱 맞지 않는다

- 신약 교회는 한 교회 안에 복수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행 14:23; 딤전 5:17).
- 그런데 계시록은 각 교회마다 ‘한 천사’입니다.
- 이것을 곧바로 “단일 목사 제도”와 연결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얹지입니다.

4. KJB 번역 패턴을 무시

- 사람 메신저를 일관되게 messenger로 번역하면서 여기만 angel이라고 번역한 것을 무시하고, “그래도 실제론 목사야”라고 하는 것은 KJB의 단어 선택을 신학보다 아래에 두는 해석입니다.
- KJB를 보존된 표준으로 믿는다면, 이런 식의 “역번역” 해석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4) 그럼 왜 “천사에게 쓰라” 하셨는가?

“계시록은 사람이 읽고, 듣고, 지키라고 주신 책인데(계 1:3),
왜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고 하셔서
마치 천사가 수신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셨는가?”

답: “천사는 교회의 하늘 대표자이자 보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1. 하늘 법정 차원의 문서

- 이 편지는 단지 지상 조직(교회)에게만 가는 문서가 아니라, 그 교회를 담당하는 하늘의 천사에게 공식적으로 통보되는 보고서입니다.
- “너희 교회의 현재 상태가 이렇다”는 것이 그 교회를 맡은 천사에게도 하늘 법정에서 기록·통보되는 것입니다.

2. 천사를 통해 교회로 전달

- 형식적 주소는 “천사에게”지만,
- 내용 전체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계 2:7, 11, 17, 29; 3:6, 13, 22)입니다.
- 즉, 천사를 통해 교회에게 떨어지는 영적 공문입니다.

3. 교회의 상태가 하늘에까지 영향을 미침을 강조

- 교회가 첫 사랑을 버렸는지,

- 교리가 부패했는지,
- 차지도 덥지도 않은지,
이것이 단지 “지상에서 평판 문제”가 아니라
하늘에서도 거론되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슥 3:1-2)

(5) 정리

- “각 교회의 천사”는
 - 그 교회를 위해 섬기고 보고하는 하늘의 존재,
 - 그 교회의 영적 상태를 하늘에 전달하며, 동시에 하늘의 메시지를 교회에 전달하는 하늘 메신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예수님은 그 천사에게 쓰라 명하시지만, 그 내용은 교회 전체를 향한 말씀입니다.
 - 그러므로 우리는 문자 그대로의 천사를 인정하면서도, 이 편지를 오늘 우리 교회와 개인에게 주신 경고와 위로로 받아야 합니다.
 - 관련 구절들: 행 7:53, 갈 3:19, 히 2:2, 계 1:1-22:6
-

2 7교회의 예수님의 모습—칭찬—책망—경고—약속

아래 표는 계 2–3장의 일곱 교회를 한 눈에 정리한 것입니다(KJB/흠정역 내용 요약).

- 일곱 교회에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로 말씀을 시작하심.
-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만 '책망'이 없음.
- 에베소 교회를 통한 강해의 예

교회	예수님의 자 기 계시(모 습)	칭찬	책망	경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 는 약속
에베소 (2:1–7)	일곱 별을 오 른손에 붙들 고, 일곱 금 등잔 사이를 거느리는 분 (교제)	수고와 인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 음,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 드러냄(고 후 12:12),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함	처음 사랑을 버림(신분-상 태-지위/사명 구분)	어디서 떨어졌는 지 기억하고 회개 하여 처음 행위를 행하라. 그렇지 않 으면 등잔을 그 자 리에서 옮기시겠 다(지위 박탈)	하나님의 낙원에 있 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심(교제의 실 체)
서머나 (2:8– 11)	처음과 마지 막이요, 죽었 다가 살아나 신 분(부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서도 실제로는 부요 함, 모독받는 가운데 서도 믿음 지킴	책망 없음	앞으로 받을 고난 을 두려워하지 말 고 죽기까지 신실 하라	생명의 왕관(관)을 받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음(계 20:5. 첫째 부활)

교회	예수님의 자기 계시(모습)	칭찬	책망	경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버가모 (2:12-17)	좌우에 날카로운 두 날 가진 검을 가지신 분(구별-거룩)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에 살면서도 이름을 굳게 불들고, 믿음을 부인하지 않음 (안디바의 순교)	발락-발람의 교리(우상제물, 음행), 니골라당의 교리를 용납함	회개하지 않으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시겠다	감추어둔 만나를 주고, 흰 돌과 새 이름이 기록된 돌을 받게 하심(언약과 속만나-예수님)
두아디라 (2:18-29)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놋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심판)	사랑, 섬김, 믿음, 인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음	거짓 여대언자 “이세벨”을 용납하여 음행과 우상제물을 가르치게 함	이세벨과 그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을 침상과 큰 환난에 던지시고, 회개치 아니하면 그 자녀들을 죽이시겠다고 경고	이기는 자에게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며, 새벽별을 주심(심후 후 새 하늘과 새 땅)
사데 (3:1-6)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미리아심)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이름이 있음	이름은 살았다는 평판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함	깨어 일깨우고 남아 있는 것을 견고히 하라. 만일 깨어 있지 않으면 도둑같이 오시리라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고,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으며, 예수님께서 그를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심
필라델피아 (3:7-13)	거룩하고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음(환난 전 휴거)	작은 능력을 가지고 도 말씀을 지키고 이름을 부인하지 않음. 주님이 연 열린 문을 불듦. “사탄의 회당”이 와서 그 발 앞에 경배하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줄 알게 됨	책망 없음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 아무도 네 왕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오는 시험의 때에서 지켜(밖으로 보존) 주심.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결코 다시 나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심(계 21:9-10. 신부)
라오디게아 (3:14-22)	아멘이시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분(새 창조)	칭찬 없음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함,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음	미지근하여 입에서 토해 버리겠다. (지위박탈/지체 아님) 불로 연단된 금과 흰 옷과 약을 사라.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문 밖에서 두드리며, 누구든 열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것 같이, 주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심(새 창조의 목적)

교회	예수님의 자 기 계시(모 습)	칭찬	책망	경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 는 약속
				면 들어가 함께 먹 겠다	

이 표만 잘 기억해도, 계 2–3장의 흐름과 각 교회의 영적 특징, 예수님의 평가와 약속이 머릿속에 정리됩니다.

③ 계시록의 “이기는 자”는 누구인가? – 상급이 아닌 공통 상속자

계 2–3장마다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을 주리라”

“He that overcometh...” (KJB)

여기서 “이기는 자”는 그리스어로 ὁ νικῶν (ho nikōn), 동사 νικάω(nikao, 니카오) – *to conquer, overcome, be victorious* (KJB: *overcome, prevail*).

이 “이기는 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계시록 2–3장의 약속을 해석하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 요일 5:4–5가 정의하는 “이기는 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이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요일 5:4–5 요약)

KJB는 이렇게 말합니다.

“For whatsoever is born of God **overcometh** the world...

Who is he that **overcometh** the world, but he that **believeth**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 “**overcometh**(이긴다)”와 “**believeth**(믿는다)”가 명백히 동의어로 병행됩니다.
-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 거듭난 자 =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 이미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 이것은 “이미-아직(already but not yet)”의 구조를 가집니다.
 - 이미: 믿는 순간 세상을 이기는 자의 신분을 얻음.(D-day)
 - 아직: 그 승리가 완전히 드러나는 것은 미래의 영화와 왕국에서 완성.(V-day)

따라서 요한이 같은 저자로서, 계시록 2–3장에 사용하는 “이기는 자(ho nikōn)”는

“특별히 잘하는 소수의 엘리트 성도”가 아니라,
거듭난 모든 성도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성경 문법”에 일치합니다.

(2) 계시록 2–3장의 약속 성격

각 교구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들을 모으면, 사실상 구원의 본질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공통 상속입니다. 예를 들어,

-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 – 영원한 생명의 완전한 누림
-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음 – 지옥과 영원한 형벌에서 완전한 보호
- 숨겨진 만나, 흰 돌과 새 이름 –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와 새 정체성(계 13:16. 짐승의 표와 반대)
- 백성을 다스리는 권세, 새벽별 –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왕-제사장의 지위(벧전 2:9. 왕가의 제사장)
- 흰 옷,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음 – 의롭다 하심과 영원한 안전 보장(계 13:8. 어린양의 생명책)
- 하나님의 성전 기둥, 새 예루살렘의 이름 – 하나님과의 영원한 거처와 소속(계 21:14. 열두 기초)
-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음 – 공동 상속자(롬 8:17)

이런 약속들은 “특별 상급(보너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함께 받는 상속”입니다.

상급(크라운, 보상, 직분)과 구원/상속은 구분해야 합니다.

- 상급: 신자의 충성도와 관련(행위에 따른 차등 보상 – 고전 3장, 고후 5장).
- 상속: 신분 때문에 주어지는 공통 유산 –
 - 롬 8:17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
 - 고전 3:21–23 “만물이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계 2–3장의 “이기는 자” 약속은 상급이 아니라 상속에 속한 것입니다.

(3) 왜 “이기는 자 = 상위 10% 엘리트 신자” 해석이 문제인가?

1. 구원을 조건부로 만드는 위험

- “어느 정도 성화에 도달해야만 생명나무, 둘째 사망 면제, 생명책 보존을 받는다”고 해석하면,
- 사실상 행위로 구원을 유지하는 구조가 됩니다.

2. 그리스도의 승리와 연합의 약화

- “우리가 이겨야만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는다”가 아니라,
-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고(계 3:21), 그 안에 있는 우리가 함께 이긴 자가 됩니다.(롬 8:37)

3. 교회 안의 계급 구조, 영적 엘리트주의 강화

- “보통 성도”와 “이기는 성도”를 나누어,
- 십자가 앞에서 모두 동일한 죄인–의인이라는 복음의 평등을 흐리게 만듭니다.

따라서 계 2–3장의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미 세상을 이긴 모든 성도를 가리키며,
그에게 주신 약속은 교회의 공동 상속, 공통 유산으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 전체와 조화됩니다.

4 필라델피아 교회의 환난 면제 약속과 환난 전 휴거 ☀️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가장 대표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키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계 3:10 요지)

“I also will **keep thee from** the hour of temptation...” (KJB)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keep ... from**”입니다.

- 그리스어: **τηρήσω σε ἐκ** (tērēsō se ek)

- τηρέω(tereo, 테레오): 지키다, 보호하다, 보존하다.
- ἐκ(ek, 에크): ~밖으로, ~로부터 (안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분리하는 뉘앙스).

즉, “시험의 때 안에서 보호하겠다”가 아니라,

“그 때 자체로부터 너를 지키겠다 = 그 시간대 바깥으로 빼내겠다”는 의미입니다.

(1) “시험의 때” = 큰 환난 시기

- 계시록의 문맥에서 “시험의 때,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사는 자들을 시험할 때”는
 - 다니엘의 **70번째 이례**와 연결되는 큰 환난(대환난) 시기입니다.
 - 특히 “온 세상,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계시록 후반부에서 심판 대상을 지칭할 때 반복됩니다.
- 이 시기는 교회가 세상에서 겪는 일반적인 박해가 아니라,(행 14:22)
 -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진노의 때입니다(“어린 양의 진노”, 계 6:16–17).

(2) 필라델피아 = 환난 직전 교회 시대 (세대주의 관점)

세대주의(KJB 입장)에서는 일곱 교회를 교회 시대 7단계의 예표로 봅니다.

- 에베소 – 사도 시대 (약 30–100년 / 사도적 사랑과 순수, 그러나 첫 사랑 상실)
- 서머나 – 초대 교회의 핍박 시대(약 100–313년 / 로마 박해 시기)
- 버가모 – 교회와 세상의 결혼(약 313–606년 / 국교화, 콘스탄틴 이후 - 교황권 시작 전)
- 두아디라 – 중세 암흑기, 로마 가톨릭 체제의 지배(약 606–1520년 / 중세–교황권 절정기)
- 사데 – 종교개혁 시대(약 1520–1750년 / 종교개혁 이후 초기 개신교 시대, 교리 회복, 그러나 실제 영성은 대부분 죽음)
- 필라델피아 – 부흥·선교·성경 보존의 시대(약 1750–1900년 / 대각성, 근대 선교 시대 - 존 웨슬레, 조지 헛필드, 조나단 에드워드 등)
 - 특히 A.D. 17~19세기,
 - KJB의 전 세계 보급, 대각성, 근대 선교 운동, 순수 복음 전파.

7. 라오디게아 – 현대 말세 교회 시대(약 1900년경–현재, 재림 직전까지 / 자유주의 신학 번영신학, 성경 비평, 근대 과학·인본주의·합리주의**가 교회 안에 깊이 스며듦, 세속화, 물질주의, 인본주의 등)

이 중 필라델피아 교회만이

- 책망 없이 칭찬만 받는 교회이며,
- “열린 문”을 받은 교회,
- “시험의 때”에서 지킴(밖으로 보존)을 약속받은 교회입니다.

세대주의적 관점에서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신자들(참된 믿음을 가진 교회)은
큰 환난 이전에 휴거되어, 그 “시험의 때” 자체로부터 지킴을 받는다.

이것이 환난 전 휴거(**Pre-trib Rapture**)의 중요한 본문 중 하나입니다.

(3) 다른 본문들과의 연결

- 살전 1:10 – “우리를 임하실 진노에서 건지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 살전 5:9 –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임하도록 세우지 아니하시고”
- 롬 5:9 –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진노에서 구원을 받음은 더욱 그러할 것이라.”

이 모든 구절은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에 참여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계 3:10은 그것을 시간적·역사적으로 구체화하여,

“시험의 시간 자체로부터 지켜 내신다” = 그 시간대 이전에 불러 올리신다(휴거)

는 약속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5 중간 휴거·환난 통과·부분 휴거론은 왜 비성경적·비그리스도론적·비교회론적인가?

이제, 다른 휴거 관점들을 간략히 비판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교회의 환난 중간 휴거론 (**Mid-trib**)

- 주장: 교회는 7년 환난의 전반부는 통과하고, 후반부 “큰 환난” 직전에 휴거된다.
- 자주 오용하는 본문:
 - “마지막 나팔에”(고전 15:52) = 계시록의 일곱째 나팔이라고 주장.

문제점

1. 나팔의 성격 혼동

- 고전 15장의 “마지막 나팔”은 교회 집합의 신호로, 축제·집합의 언어.
- 계시록의 나팔들은 재앙과 진노의 나팔입니다.
- 단어가 같다고 해서 사건이 같은 것이 아니라, 문맥과 대상이 다릅니다.

2. 교회 vs 이스라엘의 구분 붕괴

- 단 9:24–27의 70번째 이레는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시(이스라엘과 예루살렘)”를 위한 시간입니다.
- 교회는 “유대인/이방인”이 아닌 새로운 한 사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엡 2장).
- 교회를 그 기간에 억지로 넣는 것은 세대 구분을 무너뜨리는 비교회론적 해석입니다.(고전 10:32)

3. 계 4–5장의 24장로 문제

- 계 4–5장에 이미 흰옷과 금왕관을 쓴 장로들이 하늘에 등장합니다.
- 많은 세대주의 해석에서는 이것을 휴거된 교회(또는 교회의 대표)로 봅니다.
- 중간 휴거론은 이 존재들의 정체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2) 교회의 환난 통과론 (Post-trib / 환난 후 휴거 & 동시 재림)

- 주장: 교회는 7년 환난 전체를 통과한 후, 재림과 동시에 휴거된다.

문제점

1. “복된 소망”과 “영광스러운 나타나심”的 구분 상실

- 딸 2:13 “복된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 복된 소망(공중 재림-휴거의 소망)과, 영광의 나타나심(지상 재림)이 서로 구분되는 뉘앙스를 무시합니다.

2. 임박성(언제든지 오심)의 훼손

- 환난 후 휴거라면, 적그리스도의 출현, 인침, 특정 연대 계산 등 수많은 징조를 반드시 먼저 기다려야 합니다.
- 그러면 “오늘 오실 수도 있다”는 임박성이 사라집니다.(마라나타 신앙 붕괴)

3. 양과 염소 심판과 인구 문제

- 만약 모든 성도가 환난 끝에 휴거되고 즉시 재림과 최종 심판이 일어난다면,
- 어떻게 천년왕국에 들어갈 “살아남은 민족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 마 25장의 양과 염소 심판, 계 20장의 천년왕국의 출발점이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3) 교회의 부분 휴거·부분 통과론

- 주장:
 - 소위 “영적으로 깨어 있는 성도들”만 먼저 휴거되고,
 - 나머지 “미지근한/육적인 성도들”은 환난을 통과하며 정결케 된 후 나중에 별도로 들림을 받는다.

문제점

1. 그리스도의 몸의 분리

- 고전 12:13 “우리가 다 한 성령에 의해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아...”

-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영적 성적표”로 잘라내는 것은 몸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비교회론적 사상입니다.

2. 칭의와 성화를 뒤섞음

- “의롭게 된 신분”과 “성화의 정도”를 뒤섞어,
- 실제로는 행위에 따라 휴거 여부가 달라진다 = 부분적 행위 구원 구조가 됩니다.(인본주의의 본성)

3. 계 2–3장의 ‘이기는 자’ 오해

- 앞에서 본 것처럼 “이기는 자”는 모든 거듭난 성도인데,
- 부분 휴거론은 이것을 소수 영적 엘리트로 축소시켜,
- 요한일서와 계시록의 저자 일관성을 무시합니다.(성경문법 파괴)

4. 그리스도의 피의 충분성과 사랑의 완전성 약화

- “예수님의 피 + 추가적인 환난 통과로 정결케 되어야 한다”는 식의 구조는,
- 십자가의 충분성과 “완전히 끝마치셨다”는 선언을 실질적으로 약화시킵니다.

(4) 공통 결론

- 중간 휴거론, 환난 통과론, 부분 휴거론은 서로 다르게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1. 교회와 이스라엘의 구분을 흐리거나,
 2. 그리스도의 피와 승리의 충분성을 약화시키고,
 3. 성도의 공통 상속과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비교회론적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환난 전 휴거(Pre-trib)는

-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세상의 미움과 팍박을 받는다는 성경의 균형을 지키고,
- 이스라엘과 교회의 구분을 존중하며,
- 계 2–3장의 필라델피아 교회 약속과 계 4–5장의 하늘 장면과 잘 조화됩니다.

III. 결론 🌈

계시록 2–3장의 일곱 교회는

1. A.D. 1세기의 실제 교회들이고,
2. 교회 시대 전체를 보여주는 예언적 모형이며,
3. 동시에 오늘 우리 교회와 개인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영적 X-ray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붙잡아야 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수님은 지금도 일곱 금 등잔 사이를 거니십니다.
 - 교회의 주인은 사람도, 조직도, 교단도 아니라 머리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2. 각 교회(각 개인)는 칭찬과 책망, 경고와 약속을 동시에 받습니다.

- 어떤 교회는 사랑을 잃었고,
- 어떤 교회는 교리와 삶이 무너졌고,
- 어떤 교회는 곁으로는 살았으나 속은 죽어 있었고,
- 어떤 교회는 가난하지만 실상 부요했습니다.

3. “각 교회의 천사”는 교회를 위한 하늘의 메신저로서,

-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를 통해 교회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4. “이기는 자”는 모든 거듭난 성도입니다.

-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긴 자로 선언되었고,
- 장차 그 승리가 완전히 드러날 때,
- 계 2–3장의 모든 약속은 우리 모두의 공통 상속으로 실현됩니다.

5. 필라델피아 교회의 약속은

- 말씀을 지키고,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교회를 향해,
- 다가올 시험의 시간 자체로부터 지키시겠다는 환난 전 휴거의 약속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시대라 불릴 만큼, 오늘 교회는 물질주의·인본주의·형식주의 속에 미지근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하시며, 교회 문뿐 아니라 각 성도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 교회적으로는

-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 개인적으로는

- 어떤 시대, 어떤 교회 상태 속에 있더라도,
- “이기는 자”로 부르신 그 신분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부르십니다.

결국 일곱 교회의 편지는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지금 이 시대,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 “귀 있는 자”, 곧 이기는 자로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소망을 기다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